

서독의 ISBN시스템 운영

노 문 자

<숭의여자전문대학 교수>

목 차

- I. 서론
- II. ISBN의 발전과정
- III. ISBN의 구성요소
- IV. 서독의 ISBN 운영과정
 - 1. 국제 ISBN 기구 프러시아문화재국립도서관(SBPK)과 그의 임무
 - 2. 서독ISBN관리처
 - 1) 서적거래의 역사와 서독서적상조합
 - 2) 서독 국립도서관과 서적상조합의 관계
 - 3) 서독ISBN관리처의 업무
 - 3. ISBN 시스템 참여출판사의 업무
- V. ISBN·CIP·ISSN의 상호관계
- VI. 결론

I. 서론

1963년 이후 네차례에 걸쳐 제안, 시도되었던 도서관법개정이 금번에서야 결실을 보게됐음은 우리 도서관인들의 노고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다. 현대 사회의 도서관은 단순히 정보를 수집, 정리하여 이

용케하는 고전적인 기능 이외에도 전문적 연구, 분석,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창출, 개발, 평생학습의 장으로서 다각적 기능을 요청받고 있다. 이와 함께 1/4세기만의 도서관법개정은 도서관의 발전 및 육성에 관한 국가정보정책의 기본방향을 구체화 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의 이전과 함께 때를 같이 하여 통과된 새 도서관법은 조항만으로 명시되었던 국립도서관의 기능을 보다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케 함과 동시에 세계적인 도서관 발전의 추세에 맞추어 여러가지의 기능이 첨가되었다. 도서관법시행령 개정심의위원회(안)의 제20조에 국제표준자료번호¹⁾(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ISBN)와 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ISSN)의 부여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관장하기로 되어있다. 각 나라마다 ISBN과 ISSN을 관장하는 기관이 그나라의 도서관계 및 출판계 또는 도서관 및 출판계의 소속관할 정부의 부서, 더 나아가서는 그 나라의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구조의 배경에 따라 발전된 출판문화와 도서관문화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ISBN시스템에 참여하기 위해 국가 ISBN기관(national ISBN Agency)을 지정하여야할 국면에 처해있다. 과거 ISBN시스템의 참여에 관한 몇차례

1) 우리나라에서는 국제표준도서 번호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를 통칭하여 자료번호라고 하며 또 여기에다 일본의 예에 따라서 자료의 분류번호를 첨가하여 「문헌번호」라고 칭하기로 되어 있다.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법시행령 개정심의위원회(안), 도서관문화. Vol. 29, No. 1.('88 1·2. 통권248) p.33-34.

의 시도가 있었으나 성과없이 끝나고 현재로서는 출판협회 회장이 백림의 국제ISBNAgency와 접촉중이며 8월 이문제의 적극적인 진전을 위해 백림방문을 예정하고 있다.²⁾ 국립중앙도서관은 동법안 21조에 한국문헌번호 운영심의회를 설치하여 이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문교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있다. 본문에서는 한국문헌번호중에서 ISBN의 운영을 위해 참고가 되도록 서독의 ISBN시스템의 운영과정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시에 서독에서 국가 ISBN기관처를 서독 서적상조합에서 관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봄으로서 앞으로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우리의 ISBN-System의 실현에 도움이 되고자 함이다.

II. ISBN의 발전과정

60년대 말 도서관에의 컴퓨터 도입과 도서의 출판,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출판인, 서적상인들이 그들 업무의 합리화를 위해 컴퓨터를 도입, 이용한 시기는 비슷하다. 출판사나 서적상에서 그들 업무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각 도서에 번호를 배정했던 그 아이디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훨씬 전에 출판사들은 그들의 업무를 위해 고유번호시스템을 발전시켜 왔다. 과거 각 출판사 나름대로 고안, 발전시켜왔던 고유번호시스템에 비교해서 ISBN시스템에 새로운 점이 있다면 아래의 점들이다.

1. 컴퓨터를 이용한 도서번호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면서 계속 증가되는 출판물에 대한 정리, 통정을 위한 규칙을 정하여 판차사항이 다른 도서 또는 비슷한 서명을 가진 출판물에 대한 혼돈을 피하고.
2. 출판계와 서적상들이 고안해낸 번호시스템을 도서관계에서 이용하기 위함이다.

ISBN은 1963년 H.W. Smith & Son Ltd 출판사가 그들의 재고도서를 컴퓨터를 이용해 감시하도

록 하기 위해서 전체 재고도서에 번호를 부여하는데부터 시작했다. 그 당시 이미 다른 출판사나 서적상들은 각기 그들의 도서에 고유번호를 매겼던 것에 착안하여 만약 동일 도서에 서로 다른 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출판사나 서적상들의 업무의 능률을 감소시킬 뿐이라는 점에 귀결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국출판협회와 상의하여 영국 London School of Economic의 F.G. Foster 교수에게 도서표준번호제 도입에 관한 필요성과 실현성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포스터는 “there is a clear need for the introduction in the book trade of standard numbering... and substantial benefits will accrue to all parties there from”³⁾이라고 보고했다. 궁극적인 목적을 가졌으면서도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그룹들 즉 도서관, 출판사, 서점들은 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토의과정 후 1967년 영국에서 “Standard Book Numbering Scheme”이 시작되었고 1968년 미국은 영국의 도서번호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ISBN시스템의 국제화로의 단계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주최한 ISBN에 대해 1968년 런던과 1969년 백림에서 진지하게 토론되면서 부터이다. 이 회의에서 회의참가국 이외에도 UNESCO와 IFLA대표도 참석하였다. 영미시스템을 ISBN제도로 적용하기 위한 초안은 1969년 스톡홀름에서 인정되었고 거기서 제46회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에서 ISO 권고 제2108호로 인준되었다. 독일에서는 독일 공업규격(Deutsche Industrienorm=DIN1462)로 ISBN 제도가 확정되었다.

III. ISBN의 구성요소

ISBN은 10자리숫자(아라비아숫자 0-9)로 구성된다. 번호앞에는 아래의 예에서 보듯이 ISBN을 명시하고 다음 4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2) Brief vom Herrn Walter Ederer. 국제ISBN기구 대표대리. 1988년 6월 14일.

3) K.D. Wawersig. Die internationale standard Buchnummer Agentur. Mitteilungen. Staatsbibliothek preussischer Kulturbesitz. Jg. VI, H.1, 1974. pp. 65-77.

— 첫번째는 그룹식별번호(group identifier)로서 이 번호는 국제 ISBN 기구(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Agency)에서 배정한다. 번호의 길이는 해당그룹의 출판량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출판량이 많을수록 그룹식별번호의 숫자는 한자리이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영미권은1, 불어권은2, 독일어는3, 소련은5, 일본은4, 인도(일부)는93)

— 둘째로는 출판사식별번호(publishers' identifier)이다. 이 번호는 참여국가의 국가ISBN관리처(national ISBN agency)로부터 배정 받는다. 번호의 길이 역시 출판량이 많은 출판사가 작은 숫자를 배정 받는다.

— 셋째는 서명식별번호(title identifier)이다.

서명식별번호는 각 출판사의 출판물에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이 번호는 그룹번호와 출판사번호의 길이에 따라 결정된다.

— 네번째는 체크번호(check list)이다. 이 번호는 점검용번호로서 계수11과 가중치 10-2로 계산하되 10이 체크번호로 나타날 경우에는 10대신 X로 표시한다.

ISBN 3-7637-0360-5라는 ISBN에서 3은 서독이 속하고 있는 그룹번호로서 이 번호에는 독일어권의 서독, 오스트리아, 독일어권의 스위스가 포함된다. 7637은 출판사코드로서 서독 서적상조합의 출판사를 나타내고 0360은 이 출판사의 출판물중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ISBN), Leitfaden을 표시한다. 마지막 5는 체크번호로서 컴퓨터에 입력된 ISBN의 정확성을 점검하는 기호이다.

IV. 서독의 ISBN운영과정

1. 국제 ISBN 기구 프러시아문화재국립도서관(SBPK)과 그의 임무

ISBN시스템이 각국의 출판계와 도서관계의 업무를 합리화하고 출판물 이용에 기여하는 맥락에서 본다면 역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이점은 또한

UBC(세계서지통정)의 궁극적인 목적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ISBN 시스템이 국제적 협력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이 시스템을 관할하는 상설기구가 필요했다. 리스본에서 있었던 ISO/TC(Technical Committee)에서는 영국표준연구소(British Standard Institution)에서 이 국제ISBN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이행하도록 합의를 봤다. 그러나 이 연구소의 여러 다른 업무관계로 인해 1973년 IFLA, ISO, IPA(International Publisher's Association)의 승인을 얻어 서독국립도서관의 하나인 백림의 프러시아문화재국립도서관(Staatsbibliothek Preussischer Kulturbesitz =이하 SBPK로 칭함)의 종합목록과 도큐멘테이션부서(Abteilung J)에서 국제 ISBN기구의 업무를 맡기로 되었다.

SBPK는 1661년 프리드리히 빌헬름(Friedrich Wilhelm)때 설립되어 1701년 부터는 왕립도서관이라 칭해졌다. 프리드리히대왕시대에 증축되어 18세기 말에는 장서가 15만에 달했었다. 1919년 바이마르공화국의 시작과 함께 프러시아국립도서관으로 개칭되었고, 2차대전당시 장서 300만을 자랑하는 유럽의 대도서관이 되었다. 1969년부터 1978년에 완공된 신축건물에는 600명의 직원, 약 300만의장서, 3만이상의 정기간행물, 手書, 古書, 인쿠나블라, 음악자료, 필름, 지도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자료는 낱본이 아닌 구입에 의한다. 학술종합도서관으로서 전국적도서관 봉사활동을 행하고 있으며 연방내무부장관의 감독하에 연방과 수개주의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가 운영하고 있다.

SBPK에서 연간으로 출판하고 있는 Internationale Verlagsverzeichnis에 의하면 1988년 현재 ISBN시스템에서는 170,000출판사가 참여하고 있다. 동양에서는 일본이 1978년부터 가입을 신청해 1980년부터는 현재 90%이상의 출판사들이 가입하고 있고, 중국은 1987년 china ISBN agency를 지정하고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됐다. 현재 가입국은 69그룹(동일 언어권은 그룹으로 참가)으로서 실제 참가국은 90개국이다. 오스트리아, 벨기, 덴마크,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스페인, 헝가리는 이미 그들 모든 출판물에,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

덴은 93%, 남아프리카공화국은 91%, 서독, 캐나다, 미국은 90%의 출판물에 ISBN이 인쇄되고 있다. ISBN의 적용율이 보여주듯이 한나라의 ISBN시스템에의 참여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국가ISBN관리처가 지정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또 그 전에 수행되어야 할 과제는 출판계의 하부구조부터 우선 정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⁴⁾

ISBN시스템 전체를 책임지고 운영관리하는 SBPK의 국제ISBN기구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 ① 국가ISBN관리처에 그룹식별번호를 배당하며 관리한다. 이 번호의 배당시에 그 번호의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업무가 따른다. 국가나 언어별그룹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통정하면서 그룹에 대한 통계자료에 대한 색인을 작성하고 더 세부적으로는 각 지역의 번호부여의 관리에 책임을 진다.
- ② 전체 ISBN시스템의 감독이다. 국제ISBN관리기구는 어떠한 국가ISBN관리처든, ISO권고와 TC46에 정해진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또 시스템자체에 방해요소가 되지 않도록 감독한다.
- ③ ISBN시스템에 참여를 원하는 국가에 국가ISBN관리처를 설치하도록 권고, 지도하고 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수시로 전달한다.
- ④ 각 출판사의 출판사식별번호의 배정에 관하여 국가ISBN관리처에 조언한다.
- ⑤ ISBN시스템의 홍보활동이다. SBPK의 국제ISBN기구는 이 시스템에 관한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 설명자료를 제작 배포한다.

위의 업무외에도 국제ISBN기구는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① 국가ISBN관리처에 컴퓨터로 출력된 각국의 국가ISBN해당번호리스트를 배포하며 국가ISBN관리처는 이 리스트를 각 출판사에 건내준다. 이 각국 국가ISBN번호리스트는 SBPK의 도서관기계화부서(Arbeitsstelle für Bibliotechnik)에서 작성한다.
- ② 국제ISBN출판사색인을 출판하며 이 색인을 수시로 보충, 합병하여 언제나 최신성을 유지한다.
- ③ 잘못된 ISBN은 참고표시를 통해 정확한 ISBN유지에 힘쓴다.

국제ISBN기구인 SBPK는 아래와 같은 출판물로서 참가국의 ISBN관리처에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도록 하고있다.

- ISBN System. User's manual. 부정기적.
- ISBN Review. 년간.
- Internationale ISBN. Verlagsverzeichnis (ISBN-VV)=International ISBN publisher's directory. 여기에는 ISBN시스템에 아직 참여하지 않은 각국의 출판사들의 주소도 수록되어 있다. 이외에도 ISBN과 관련된 출판물로서는 Publiher's international directory(PID) with ISBN index=Internationales Verlagsverzeichnis mit ISBN-Register(Handbook & international documentation and information, 7) 이 있다.⁵⁾
- The ISBN system and its uses=Das ISBN-System und seine Anwendung; Video and slide sound show. 이것은 12분 짜리 비디오필름과 17분짜리 slide sound show로서 짧은 시간에 ISBN의 적용범위를

4) 현재 우리나라의 출판사들은 3,000여개를 넘고 있지만 실제로 출판문화협회에 등록이 된 출판사는 1,034개에 불과하다. 물론 출판량은 출판문화협회에 등록을 한 출판사의 출판물이 대부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지만 영세적인 출판사의 미등록은 결국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납본제도, 더 나아가서는 국가시지의 출판과도 관련이 있다.

5) ISBN-VV와 PID는 서로 비슷한 내용을 수록한 정보자료로서 PID는 각 나라의 출판사에게 질문지 배포를 통해 얻은 자료이다. 반면 서독, 일본, 네델란드, 영국, 미국같은 나라에서는 ISBN-VV의 수록데이터를 직접 자기데이터프로 부터 얻고 있다.

Ausgewählte Bibliographien und Nachschlagwerke. ZfBB. Jg. 33, H. 5. p. 395.

이해하기 쉽게 제작한 자료이다.

2. 서독ISBN관리처

ISBN시스템의 운영관리는 세단계로 나눌 수 있다. 각국의 ISBN을 통괄, 통정, 감독운영하는 국제ISBN기구 이외도 국내의 출판사와 함께 국가ISBN시스템을 관장하는 국가ISBN관리처와 또 출판사내의 ISBN부서이다. 이 세차원에서의 임무는 모두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국가ISBN관리처의 임무는 그 비중을 더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ISBN시스템은 각국의 ISBN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 책임, 감독할 수 있는 국가ISBN관리처(national ISBN agency or group agency)가 상설되어야만이 가능하다. 국가ISBN관리처는 한편으로 각국의 출판사와의 협동과 상호정보교류를 원활히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ISBN기구와의 협동을 하는 가장 중요한 교량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는 서독의 국가ISBN관리처는 서독국립도서관을 설립한 서독 출판사 및 서독서적상조합(Börsenverein des Deutsche Verleger und Buchhändlerverbände e.V)의 출판사(Verlag der Deutschen Buchhändler-Vereinigung, Frankfurt am Main)에서 도맡고 있다.

서독에서는 서독국립도서관을 설립한 서독서적상조합이 서독ISBN관리처로 지정됐지만 각 나라마다 국가ISBN관리처를 대표하는 기관은 다양하다. 이라크는 국가기관인 Ministry of Information의 National Publishing House에서 또, 라틴아메리카는 국립도서관 내지는 출판협회가 국가ISBN관리처의 업무를 수행한다. 인도는 문교부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ISBN업무를 관여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 1987년 년간으로 발간되는 ISBN review에 의하면 국립도서관 내지는 도서관 및 국가정보센터와 관련된 기관에서 국가ISBN관리처로 지정된 나라는 65개국 중에서 34개국으로 절반 이상

을 차지하고, 그외 개인 출판사나 출판협회 등 출판관련기관은 13개국, 정부관련기관, 예를들면 문교부, 상공부, 문화공보부의 도서관 및 출판부서가 8, 그외 ISBN을 위해 별도로 ISBN관리처를 설립한 곳은 5개국이다.⁶⁾ 다음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한국ISBN관리처(Korea ISBN Agency)를 지정하는데 참고가 되기위해 서독서적상조합이 서독ISBN관리처로 지정되기 이전에는 어떠한 역사적, 정치적, 도서 및 출판문화적, 특히 서적상업사적 요소가 참작되었던가를 살펴본다.

1) 서적거래의 역사와 서독서적상조합

플라톤이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철학서적을 살 수 있었던 아테네시장 아고라(Agora)의 서적판매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을 지금의 도서시장과 비교해 볼 때 물론 우리는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의 서적상법에 대해 말 할 수 있다. 로마시대의 도서거래는 양적인 면에서 약간의 변화는 가졌었지만 획기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또한 당시 저작자의 창조성에 대한 댓가인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것은 당연했다. 12세기 대학들의 출현은 학생들이 필요로하는 자료에 대한 요구로 stationarii를 중심으로 手書의 거래를 형성하기 시작했지만 당시의 대학은 한정된 학생의 수에 불과해서 서적거래 역시 큰 발전은 가져오지 못했다. 그 후 르네상스와 함께 학문에 대한 열의는 도서에 대한 요구를 자극시켜 이때부터 광범위한 개인도서수집을 낳게 되었다. 또 이러한 요구는 서사자료인 종이가 유럽에 보급되면서 구텐베르그의 인쇄술과 절충되어 도서의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었다. 도서의 생산이 증가되면서 도서의 생산자와 판매상이 동일인이었던 단순한 상업관계를 탈피하여 출판사와 서적상이 서로 독립된 관계로서 전문성을 띄게 되었다. 도서의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출판사와 서적상들은 인구집중대도시를 돌아다니며 그들의 출판물목

6) a. K.D. Wawersig. Die internationale Weiterentwicklung des ISBN-Systems, *Zeitschrift für Bibliothekswesen und Bibliographie(ZfBB)*. Jg. 29, H. 3, 1977. p.232.

b. ISBN review 8. 1987. pp. 80-92.

록, 또는 판매목록을 만들어 도서전시회를 개최했다.

라이프찌히(Leipzig)와 후랑크푸르트(Frankfurt)는 중세때부터 서적상인들이 모여 그들의 신간물을 전시하며, 거래가 이루어져 오던 상징적인 장소였다. 라이프찌히의 서적상 Henning Groß 신간물은 반년간으로 라이프찌히와 후랑크푸르트의 도서전시회에 출품하였고, 이러한 전시회출판물총목록은 당시에 판매목록 및 국가서지의 성격을 띄고 있었다. 이 전통은 1860년까지 지속되었으며 동서독의 분단이후 서독의 후랑크푸르트에서 세계도서전시회(International-Book Fair)가 개최되는 것이 여기에서 유래된다. 1481년과 1530년 사이에는 출판사와 서적상, 저자와의 독립된 관계를 형성, 유지해오던 서적상들이 46개에 달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자의 저작권에 대한 저작료(Honor)는 출판사들이 부담하지 않았다. 16세기 가장 유명했고 또 가장 많이 읽혀졌던 마틴 루터는 거듭된 재판과 증판된 그의 도서에도 불구하고 출판을 통해 큰 이익을 보지못했던 대표적인 케이스였다. 1825년 '해적판에' 대한 갈등과 도서가격에 대한 여러차례의 논쟁 후 출판사 및 서적상등의 조합인 독일서적상조합(Börsenverein der deutschen Buchhändler)이 결성됐다. 이 명칭은 1794년 라이프찌히에서 포스탐(Postam) 서적상인 Karl Christian Horvath가 설립했던 서적상협회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 독일서적상조합의 설립에 대해 당시 영국의 출판서적상인인 Stanley Unwin은 "세계에서 가장 선구적이고 또 완벽한 조직으로서 출판, 서적상의 발전을 한단계 올려놓은 계기였다고 했다.⁸⁾ 이 서적상조합의 주축으로 요즘 또 다시 대두되고 있는 저작권문제와 관련해서 1837년 독일은 연방회의에서 저자의 창작물에 대한 보호를 사후 30년으로 합의를 보았다. (현

재 서독의 저작권보호기간은 70년이며 그의 국가들은 대부분 50년이며 한국도 1987년부터 30년에서 50년으로 연장됐다.)

1910년 세계 제1차대전 전 독일국립도서관(Deutsche Bücherei : 현 동독국립도서관)의 설립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당시 서적상조합은 작센(Sachsen) 주정부와 라이프찌히시와 공동으로 1913년 국립도서관의 설립을 위해 국립도서관의 첫째 기능인 독일출판물을 구입, 보존하는 업무를 시작하였다. 국립도서관의 설립후 그의 중요한 기능을 납본도서에 대한 서지발간사업이다. 1915년부터 개인출판사에서 발간되는 종합판매목록(Kayser와 Hinrich)을 독일 국립도서관에서 양도받으면서 체계적인 독일국가서지가 시작되었다. 1921년부터 세계 2차대전 발발까지 발간되던 일간서지가 국립도서관에 흡수되면서 1931년부터는 서적상조합은 신간출판물 판매목록도 간행했다. 1933년 히틀러의 정권장악과 함께 나타난 독일제국의 국가 형태는 1940년부터 독일도서관의 관리유지를 독일제국, 작센주 정부, 그리고 라이프찌히시가 각 1/5씩을 부담하고 그의 2/5는 독일서적상조합이 도맡게 되어 실질적인 국립도서관의 주인이 되었다.

2) 서독 국립도서관과 서적상조합의 관계

세계 2차대전 후 독일은 미국, 영국, 소련, 불란서의 공동점령하에 서독은 소련을 제외한 3국의 통치관할을 받게됐다.

국가의 분단과 함께 라이프찌히의 독일국립도서관이 동독국립도서관으로 되면서 서독에는 동독과 견줄만한 국립도서관이 사실상 없게됐다. 옛 전통과 습관에 따라 다시 1946년부터 서독에서는 서독서적상과 출판협회가 서독의 서적상조합을 조직하면서

7) 일반적으로 해적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이미 알려진 것이고 또 인정할만한 것이었지만 한때 특히 국민계몽시대(Reformation)에는 고가의 도서는 일반국민에게 읽혀지기 어려워 복사판이 일반국민의 계몽에 한몫 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음을 지적하고 싶다.

8) Stanley, Unwin. The Truth about publishing. Das wahre Gesicht des Verlagsbuchhandel, übers. v. Schnabel. 1927. Hans Widmann Geschichte des Buchhandels...123페이지 재인용.

국립도서관의 설립에 앞장서게 되었다.⁹⁾

서독국립도서관의 명칭(Deutsche Bibliothek)도 서독서적상조합의 서독도서관(Deutsche Bibliothek der deutsche Buchhändlervereinigung)에서 유래되고 있다. 설립당시 서독국립도서관의 기본장서는 서적상조합의 도서관장서였다. 한나라의 국립도서관을 설립했고 또 주도, 운영하는 서적상조합이 서독ISBN관리처로 지정되어 그 책임과 기능을 수행한것은 어떠한 토론의 여지도 없이 받아들여졌다. 다시 말하면 서독국립도서관은 서적상조합의 분신임과 동시에 파트너인 것이다.

도시 후랑크푸르트(Frankfurt am Main)는 전장에서도 언급이 됐듯이 중세때부터 라이프찌히와 함께 독일 출판 및 서적상들이 모여 그들의 출판물을 전시하며 전시판매목록도 제작했던 곳이다. 동서독이 분단된 후에 동독의 서적상들의 중심지는 라이프찌히, 그리고 서독의 중심지는 후랑크푸르트로 자연스럽게 정해졌으며, 이를 계기로 여기에서 또 서독서적상조합이 설립됐다. 또 이 도시는 정치적으로 불란서혁명의 영향을 받아 독일에서 1848년 봄의 혁명과 함께 독일 최초의 국민의회가 개최된 역사적인 도시이기도 하다. 또 이곳은 현재 서독의 수도 본(Bonn)이 임시 수도로 정해지면서 정치적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서독의 수도로 내정된 중요한 정치, 상업도시이다.

서독국립도서관의 운영, 관리를 위한 인적구성원을 보더라도 국립도서관과 서적상조합의 밀접한 관계가 나타난다. 서독국립도서관의 감사국(Kuratorium)의 위원 8명중 2명이, 또 고문(Beirat) 10명중 5명이 서적상조합측에서 대표하고 있다. 1969년 국립도서관 운영위원회(Verwaltungsrat)에 연방정부대표(내무부) 4명, 서적상조합대표 3명, 후랑크푸르트시 대표 1명, 서독학술진흥회원 1

명, 독일악보출판사협회대표 1명, 서독음반제작사대표 1명¹⁰⁾으로 구성된 점을 보더라도 그들의 관계가 분명해진다.

서독 서적상조합이 서독ISBN관리처로 지정된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는 국립도서관의 중요한 기능과 국가ISBN관리처의 업무가 절충되어 서독의 국가서지가 거의 완벽하게 이 두기관의 공동작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점이다.

서독국립도서관은 1966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MAB-I(Machinelle Austauschformat für Bibliotheken I) 프로그램으로 국가서지의 전산화를 시도했다. 서지작업의 전산화는 신속한 문헌정보전달에 혁신을 가져왔다. 주간서지, 반년간서지, 년간서지를 5년간서지로 합병, 출판하는데 시간적 격차를 감소시켰고, 또 신속하게 마이크로펄스로 서지출판을 가능케 했다. 특히 1972년부터 연간국가서지에만 부여되었던 출판사-, 저자-, 서명-, 주제명-, KWIC색인과 ISBN색인을 1977년부터는 주간국가서지에도 위의 색인들이 첨가되어 자료를 이용하는 기관, 단체의 업무를 수월하게 했다. 아래는 서독국립도서관에서 주관하고 서적상조합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국가서지를 자세하게 소개했다.

— 서독국가서지(Deutsche Bibliographie)

a. 주간서지(Wochentliche Verzeichniss), 1947—

- Series A: 출판사의 출판물
- Series B: 출판사외의 출판물
- Series C: 지도
- 신간도서-속보서비스(CIP), 부록으로서
- 비출판 학술자료보존(Archiv für nicht veröffentlichte Wissenschaftliche Schriftum)
- 서명-, 저자명-, 주제명-, KWIC-,

9) 1952년 회계년도의 예산에 의하면 독일연방정부의 내무부(Bundesinnenministerium), 후랑크푸르트가 있는 헤센 주정부(Das Land Hessen), 후랑크푸르트시와 서적상조합이 각각 1/3씩 전체 예산을 분담하였고 1969년부터 연방정부와 서독서적상조합이 주로 분담하고 있다.

10) 악보출판사협회대표와 음반제작사대표가 국립도서관의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을 대표하고 있는것은 국립도서관의 수집보존자료의 대상범위가 비도서자료에까지 확대된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는 이들 자료에 대한 서지작업도 더불어 수행하고 있는 점이다.

- 출판사—, ISBN색인
- b. 반년간서지 (Halbjahres Verzeichnis), 1951—
 - Section 1 : 서명리스트
 - Section 2 : KWIC과 주제명색인
- c. 5년간서지 (Fünffjahres Verzeichnis)
 - 서명리스트
 - KWIC와 주제명색인
 - 지도리스트
 - 마이크로펫쉬간행 (1971-1973)
- d. 정기간행물서지, 1945—
 - 서독정기간행물서지 (1945년부터 격년간 간행)
- e. 서독정부간행물서지 (1947년부터 격년간)
- f. 서독박사학위논문서지 (1971년부터 월간)
- g. 음반서지 (1974년부터 월간과 계간+색인)
- h. 약보서지 (1970년부터 월간+색인)
- i. Bibliographie des publication allemandes traduite en langue française(1972-1976)
- j. Bibliography of German publications in English transtansions(1972-1976)
- k. ISSN-Key -Tile-Index
- l. BIBLIO-DATA

3) 서독ISBN관리처의 업무

위에서 자세히 보여주듯이 서독국립도서관의 설립 자이며 또 서독의 국가차원의 서지를 도맡아 출판하고 있는 독일서적상조합의 출판사가 서독ISBN관리처로서 수행해야하는 업무는 아래와 같다.

- ① 서독의 ISBN관련기관을 대표하며 출판사와 서적상간의 유통관계를 검토하여 출판사의 ISBN시스템에의 참가자격여부를 결정한다.
- ② 참가여건을 갖춘 출판사에게 출판사코드를 배정한 후 배당한 번호를 등록, 관리한다.
- ③ ISBN시스템에 참여한 각각의 출판사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 ④ 참여출판사의 ISBN관련업무수행을 위해 지침서를 작성, 배포한다.
- ⑤ 출판사들이 출판물에 부여한 ISBN을 검토, 확인하여 이에대한 등록대장을 작성, 보관한다.
- ⑥ 컴퓨터로 출력된 ISBN리스트를 국제ISBN기구로부터 넘겨받아 각 ISBN 참여출판사에 보낸다.
- ⑦ 국가서지에 ISBN을 수록하도록 장려한다. 이점에 대해서는 전장에서 자세히 설명됐다.¹¹⁾
- ⑧ 서독ISBN관리처는 자국의 출판산업에 대한 현황파악과 출판사, 서적상, 국가서지기관과의 지속적인관계를 유지한다.
- ⑨ ISBN시스템 도입이전에 간행된 출판물에 대해서도 가능한한 ISBN을 부여토록 조정한다.¹²⁾
- ⑩ 완벽한 ISBN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출판사의 가입을 홍보한다.
- ⑪ ISBN의 적용범위를 출판계, 도서관계에서 더욱 더 넓히기위해 연구, 개발하여 장려, 지원한다. (예 ; 서점주문절차=Teleordering, 재고관리, 도서반송절차, 상호대차제도, 정보검색, UBC에의 응용)¹³⁾

11) 1977년의 통계에 의하면 국가서지에 ISBN을 수록하는 나라는 오스트리아가 54%, 핀란드 75%, 캐나다 95%, 나이지리아 85%, 로지리아 95%, 남아프리카공화국 85%, 헝가리 40%이며, 미국은 LC의 배포용 카드에도 AACR₂에 의해 ISBN이 수록되어 있다.

12) 특히 영국은 과거의 출판물에도 ISBN을 첨부시켜 96%의 성공율을 보여주고 있다.

13) 서독의 7개 지역정보센터중 Hessische Zentralkatalog에서는 상호대차에 ISBN을 이용하기위해 ISBN리스트 (ISBN-Verzeichnis des Hessischen Zentralkatalog)를 간행했다. 자세한 것은

a. Hildergard, Hüttermann. Zwei Jahre ISBN-Projekt beim Hessischen Zentralkatalog(Two yeras of the ISBN-project at the Hesse Union calalogue), *ZfBB*. Jg. 24, H.I, 1977. pp. 34-42.

b. Jürgen, Heydrich. Fernleihe in Nordrhein Westfalen und in nördlichen Rheinland-Pfalz. 1982(Interlibrary loans in North Rheine-Westfalia and the northern Rhinland Palatinte), *Mitteilungen Verband der Bibliotheken des Landes Nord-rhein Westfalen*, Jg. 33, H. 3, 1983. pp. 181-232.

3. ISBN시스템 참여출판사의 업무

국가ISBN관리처가 그들의 완벽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이 시스템에 참여하는 각 출판사들이 그들의 의무와 몫을 원활히 진행해야만이 ISBN시스템의 이용효과는 세계통정(UBC)의 궁극적인 목적과 일치된다고 볼 수 있다.

서독의 ISBN관리처인 서적상조합출판사로부터 출판사식별번호를 배당받으면 출판사는 그들의 출판물에 대하여 각 도서당 서명식별번호를 부여한다. 이 업무가 착오없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ISBN책임자를 정해야한다. ISBN책임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 각 출판물에 서명식별번호를 부여한다.
- ISBN부여대장을 관리한다.
- 출판물에 ISBN의 표시위치를 결정한다.
- 결정된 번호가 국가서지에 수록되도록 업무관련자와 상의, 결정한다.
- ISBN대상자료의 카테고리¹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만약 취소, 중복된 ISBN에 대해서는 모든 관련업무자와 상의, 그 대책을 강구한다.

V. ISBN. CIP. ISSN의 상호관계

서독학술진흥회(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의 재정지원과 출판사 및 서적상조합의 협조로 서독국립도서관에서는 그들이 준비하고 서적상조합의 출판사에서 발간되는 서독주간 국가서지에 CIP(출판물편목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편목의 합리화와 목록규칙의 통일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있다. 이의 업무를 위해 국립도서관에서는 CIP센터를 설

치해서 CIP-속보서비스(CIP-Sofortdienst)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서가 市販되기 약 8주일전에 이미 도서관에서는 출판예정자료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 CIP(Cataloging in Publication)-목록은 표제지의 이면(Verso)에 인쇄된다. 1961년 파리의 국제목록원칙회의(ICCP)와 국제표준서지기술(ISBD)의 영향을 받아 각국마다 그들 목록규칙의 개정작업에 노력을 했다. 독일도 이를 계기로 그때까지 사용해오던 PI(Preuussische Instruktion)이외에 새로운 목록규칙인 RAK(Regeln für Alphabetische Katalogisierung)을 AACR₂의 방향으로 새로이 작업했다.¹⁵⁾ RAK에 의하면 주기사항(Notes area)에 ISBN을 명시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CIP 프로그램은 결국 ISBN이 각 도서에 수록되도록, 더 나아가 국가서지에 수록되도록 자연스럽게 해결해준다. 이에 따라 서독국립도서관은 CIP-속보서비스를 통해서 출판물이 시중에 판매되기 이미 8주일전에, 정확히 말하자면 출판예정인 주간국가서지가 인쇄과정에 있는동안 각 도서관은 라인프린터로 출력된 예비주간국가서지를 입수할 수 있어 각 도서관의 수서업무의 간소화 뿐만아니라 대출업무, 정리업무에도 신속을 기하고 있다.

CIP-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출판사들은 출판준비자료, 즉 인쇄과정에 들어가는 출판물의 표제지(판권지포함), 서문, 목차, 서론등으로 구성된 내려판교정쇄(Fahnenabzug)를 국립도서관에 보낸다. CIP센터에서는 3~5일 이내에 내려판교정쇄를 근거로 각 도서에 대한 3부의 목록카드를 작성해서 도서관의 정리과, 각 출판사, 그리고 CIP센터로 각각 보낸다. CIP-센터에서는 이 목록카드를 근거로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시킨 후 라인프린터에 출력하여 출판예정자료가 국가서지의 간행을 위해 아직 인쇄과

c. Rudolf, Jung. Universal Bibliographic Control (UBC) in German, *ZfBB*. Jg. 30, H. 2, 1983. pp. 111-199

d. The ISBN systems and its uses. video and slide sound show. Berlin, Intern. ISBN agency.

14) ISBN User's manual. Berlin, Intern. ISBN agency 1988. p. 10.

玄圭燮, 國際標準圖書番號(ISBN)制度的基本方向分析, 도서관. Vol. 43, No.1.(1988.1·2. 통권294) p.16.

15) Klaus, Haller. Titelaufnahme nach RAKI. 1. Aufl, München, Verlag Dokumentation. 1976.

정에 있는동안 출판예상자료에 대한 문헌정보는 각 도서관에 보내진다. 1972년부터 연간국가서지에만 첨부되었던 ISBN-색인은 1977년부터는 저자, 서명, 주제명, KWIC색인과 함께 ISBN색인도 주간 국가서지에 수록되고 있다.

출판사들이 출판예정도서의 표제지, 판권지를 도서발행 15일전에 제출토록 규정하는 국립도서관에 대해서 “명백한 출판행정부의 침해며 출판자유에 대한 중대한 도전”¹⁶⁾이라는 출판협회의 주장이 있었다. 서독의 예에서 보여주듯이 국립도서관은 도서검열의 기능을 갖지않는다. 무엇보다도 ISBN의 도입은 가능한 한 문헌정보의 신속하고 광범위한 이용을 목적으로 함이 인식되어야 한다고 본다. 결국 국립도서관은 서적상조합의 파트너(Partner der Börsenvereins)¹⁷⁾이지 라이벌은 될 수 없다.

ISBN이 국가서지에 수록되는데는 CIP가 실현화 되면 자연스럽게 유도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ISBN시스템에의 가입과 함께 CIP에 대한 문제도 같이 다루어 지는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미국, 일본등에서 실현되고 있는것 처럼 분류번호도 CIP에 첨가시키면 정리업무의 간소화에 크게 이바지 될 것이다.

서독에서 ISBN이 서적상조합과 국립도서관의 공동작업으로 구체화 되듯이 ISSN(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의 국가책임기관도 국립도서관이다. ISBN과 ISSN이 같은 기관에서 다루어 지는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서독의 국가 ISDS(국제연속간행물메타시스템)센터인 국립도서관에서는 그들의 국가연속간행물서지의 출판을 위해 준비된 데이터베이스에서 기계가독형형태로 ISSN과 “Key title” 등 필요한 정보를 파리의 ISDS-센터에 보내고 있다.¹⁸⁾

VI. 결론

우리나라의 ISBN시스템에의 가입에 즈음하여 참고가 되기위해 서독의 ISBN운영과정을 예로 들었다. 국가ISBN관리처를 결정하는데는 서독의 경우 특이한 정치적, 역사적, 특히 도서출판의 상업사적 관점, 그리고 국립도서관과의 관계가 중요한 요소로 등장했었다. 이 모든것을 종합해 본다면

첫째 도서관과 출판계의 상호협력이 요구된다.

(서적상조합과 국립도서관은 파트너관계)특히 여기서는 서적상조합이 국립도서관을 설립했다는 특이한 경우에서 유래된다.

둘째 국가ISBN관리처는 국가서지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ISSN, CIP포함). 서독은 중세때부터 출판사 및 서적상들이 출판목록도 판매목록도 국가서지로 사용하였다.

셋째 ISBN의 이용은 출판계, 도서관계가 공동으로 적극 이용하기위해 연구, 개발하며

넷째 본 논문의 주제는 아니지만 ISBN시스템에 관한 모든 사업은 남부제도의 완벽한 실행에 서만이 가능한 점을 중시하여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1) ISBN제도. 민간자율에 맡겨야, 출판저널. 1988년3월20일. p.17
- 2) 玄圭燮. 國際標準圖書番號 (ISBN) 制度의 基本方向分析, 도서관. Vol. 43, No. 1.(1988, 1·2, 통권294) pp. 5-26.

16) ISBN제도. 민간자율에 맡겨야, 출판저널. 1988년 3월20일, p. 17.

17) Berthold, Picard. Der Börsenverein und die deutschen national bibliothek und nationalbibliographie, *Börsenblatt für den Deutschen Buchhandel*. Frankfurter Ausgabe, Vom. 24, Nr. 32, April. 1975.

18) Dieter, Wolf. ISSN-Verwalt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fBB*. Jg. 25, H. 2, 1987. pp. 80-95.

- 3) Ausgewählte Bibliographien und Nachschlagwerk. *ZfBB*. Jg. 33, H.5, 1986. pp. 395.
- 4) Die deutsche Bibliothek. Hrsg. v. R. Saevekke (Ämter und Organisation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58). Düsseldorf, Droste Verl. 1980.
- 5) Brief vom Herrn Walter Ederer. 1988.6.14.
- 6) Haller, Klaus. Titelaufnahme nach RAK. 1. Aufl. Verlag Dokumentation. 1976.
The ISBN system. User's manual. Berlin, International ISBN agency.
- 7) The ISBN system and its uses=Das ISBN-System und seine Anwendung. Video and slide sound show. Berlin, International ISBN agency.
- 8) Mummendey, Richard. Von Büchern und Bibliotheken. 5. durchges. und erg. Aufl. Darmstadt. Wissenschaftl. Buchges. 1976.
- 9) Neubauer, K.W. and Selbmann, S.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ISBN) in libraries. *Unesco Bull. Lib.* Vol. 28, No. 3, 1974. pp. 125-130.
- 10) Picard, Berthold. Der Börsenverein und die deutsche National Bibliothek und Nationalbibliographie. *Börsenblatt für den Deutschen Buchhändlervereinigung*. Frunkfurter Ausgabe, Nr. 32, V. April, 1975. pp. 77-88.
- 11) Wawersig, K.D. Die internationale Standard Buchnummer Agentur. *Mitteilungen Staatsbibliothek preussischer Kulturbesitz*. Jg. VI, H. 1, 1974. pp. 65-77.
- 12) Wawersig, K.D. Die Internationale Weiterentwicklung der ISBN-Systems. *ZfBB*. Jg. 24, H. 3, 1977. pp. 228-234.
- 13) Widmann, Hans. Geschichte des Buchhandels. Vom Altertum bis zur Gegenwart. Völlig neu bearb. Aufl. v. 1952. Wiesbaden, Harrassowitz. 1975.
- 14) Wolf, Dieter. ISSN-Verwalt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fBB*. Jg. 25, H. 2, 1978. pp. 80-95.

한국도서관협회 출판물안내

☎ 137-04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2동 산60-1

☎ (535) 4868 · 5616

서 명	저 자	발행년도	면수	가 격
도서관학·정보학 용어사전	사공 철 등 편	1986	335	25,000원
한국학자료선정목록	한국도서관협회	1986	331	18,000원
비도서 자료	김 남 석	1984	344	5,000원
한국도서관통계(1987)	한국도서관협회	1988	59	4,000원
한국도서관기준	기준분과위원회편	1981	109	3,500원
선정도서목록 IV	한국도서관협회	1971	222	3,000원
선정도서목록 II	한국도서관협회	1967	222	2,500원